

경전 과도 최초 공개

남양주 봉선사 조실 월운 스님 '능엄경' 한글과도집 발표

선사들은 제자에게 법을 전할 때 주장자와 가사 등을 징표로 전한다. 강사들은 전장 때 제자에게 과도를 전한다. 과도는 그림을 뜻하며, 경전을 조목 조목 분류별로 나눈 것이다.

강사와 강사에게 출가자 사이에서만 전하던 과도가 누구나 알기 쉽게 한글로 풀이돼 한국불교사 최초로 재가불자에게 공개됐다.

남양주 봉선사(주지 정수)는 2월 7일 청풍루에서 '능엄경' 한글과도 발표대법회를 봉행했다.

한글과도는 역경보살 월운 스님(봉선사 조실)이 제작·공개했다. 스님은 '능엄경'의 큰 단말과(경전의 최소 구분단위) 159개 항을 추려 '수능엄경 한글과도집'이라고 이름 붙였다.

월운 스님은 "능엄경"을 접하는 불자들에게 가닥을 잡아 정리해주면 좀 더 쉽게 이해하고, 출·재가를 막론하고 보다 많은 이들이 경전 공부에 흥미를 갖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한글과도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스님은 2011년 가을부터 우리말(능엄경) 강설법회를 매주 화요일 봉선사에서 열고 있다. '능엄경'이 한글번역은 돼 있어 대중이 낱말 뜻을 알아도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한글과도집을 펴낸 것이다.

스님은 "경에 과목(科目)이 있는 것은 마치 도로에 이정표가 있는 것과 같다"며 "이는 범부로부터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는 방향과 거리와 그 구간구간에서 무엇을 어떻게 닦아야 하는지를 자세히 일러줘 경을 보는 이로서는 꼭 참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전참고서 <과도> 한글 번역

재가자 경전공부에 큰 도움

"경전해석, 스님 전유물 아닌

재가불자에게 확장될 사건"

월운 스님은 "과도를 만들어 공개하는 것은 대단히 조심스러운 일이다"라고도 말했다.

선사가 주장자 전하듯, 강사는 과도를 전하는데 스님과 스님 사이에서 은밀히 전해지던 것을 재가자에게 알리기를 결정하기까지 고민이 적지 않았다는 설명이 이어졌다.

스님은 "육을 먹어도 크게 육먹을 일이지만 한 사람이라도 쉽게 경전을 이해했으면 하는 마음, 한 사

람이라도 더 경전공부에 마음을 기울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한글과도집을 만들어 공개한다"고 말했다. 월운 스님은 우리나라 땅이 시·도·군·면·읍·리·자연부락 등으로 구성돼 있듯 경전도 구분되며, 땅의 자연부락에 해당하는 경전의 최소 구분 단위가 단말과(端末科)라고 설명했다. 경전을 구분해 알고 나면 앞 내용으로 뒤가 이어지는 것을 파악할 수 있어 경전 보는 재미가 생긴다는 설명이다.

봉선사 회주 밀운 스님(조계종 원로회의 부의장)은 추사에서 "월운 스님이 수개월간 골방에서 컴퓨터만 바라보던 <한글과도집>을 내놓았다. 스님이 마지막 강의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시는 것 같으니 여러분들도 '능엄경' 공부에 정성을 쏟아 달라"고 당부했다.

봉선사 주지 정수 스님은 인사말에서 "한글과도집" 발간은 불교사에 없던 일로 교학을 더 크게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월운 스님은 "한글과도 공개는 한국불교 교학의 트렌드를 바꿀 것이다. 경전 해석이 더 이상 스님의 전유물이 아니라 재가불자에게 확장되는 사건이다. 한글과도를 보급을 계기로 경전공부가 크게 유행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celana@hyunbul.com



"미미세, 더 이상 죽이지 마라!"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상임이사 퇴휴)와 티베트 독립 지지단체인 람캤, 티베트하우스코리아(대표 남파)가 인사동 복인사마당에서 중국의 유혈진압 규탄 집회를 2월 8일 열었다. 집회에 모인 참가자들은 '더 이상 죽이지 마라'는 뜻의 티베트어 '미미세'를 외치며 중국정부를 규탄했다. 집회 후에는 조계사 대웅전에서 불교시민사회연대(대표 퇴휴)가 추모법회를 열고 희생된 티베트인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했다.

글=주성원 기자 jsw@hyunbul.com · 사진=박재완 기자 waniholo@hyunbul.com

종정 추대법회서 종교평화선언 공표

총무원장 자승 스님, 송석구 사회통합위원장 예방 때 밝혀 민족화해·평화통일·생명평화 염원 천일기도 입재도

'종교평화선언을 위한 불교인선언(종교평화선언)'이 조계종 종정예하 추대법회에서 발표된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2월 8일 송석구 사회통합위원장 예방을 맞아 환담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스님은 자승과 쇄신 결사를 본듯 기쁘게 인사했다. 이날 예방에는 자승 스님과 송석구 위원장을 비롯해 기획실장 정만 스님, 사회부장 경경 스님이 각각 참석했다.

송석구 위원장은 "7대 종단 평화유지를 위해 불교가 중심이 되어 선언문을 작성하고 천주교와 기독교

도 참여했다고 들었다.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정만 스님은 "3월 28일 종정예하 추대법회에서 종교평화선언을 발표하고, 민족화해와 평화통일, 한반도 생명평화 공동체를 염원하는 천일기도 입재가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자승 스님도 "종정예하 추대식과 더불어 종교평화선언을 진행하고 천일기도는 종정예하께서 먼저 입재해 주실 것이다"라며 송 위원장의 동참을 권유했다. 스님은 또 최근 청와대에 청원한 용산참사 관련자 사

면과 관련해서도 사회통합위원회가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자승 스님은 "최근 용산문제와 관련해 구속자 사면을 청원했다. 구속자들에게 영치금과 책 선물도 했고 조간간 사무실도 방문할 예정이다. 3·1절이건 부처님오신날이건 반드시 특별사면이 이뤄져 이분들이 사회에 동참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송석구 위원장은 "신문을 보고 정원 사실을 알았다. 대통령께서 해의순방에서 돌아오시면 간곡히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종교평화선언문은 아직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문구를 정리하는 중이다.

박기범 기자 smile2@hyunbul.com

875호 CONTENTS

종단 자승 스님 용산참사 대책위 방문 화쟁위, 한진중 사법처리 반대 법안 3.25 주지 선출키로 법주사 차기 주지 합의추대 무산

종합 동국대 김희욱 총장 남북 불교의례 통합 추진

시방세계 신홍사 동안거 해계 법회

해외 미, '명상 식사'에 폭 빠지다

신상품 LED인등·전구 찬덕불교

031)792-6288 / 794-4055

2012 한 마음 아버지 마당

“당신이 바로” 주인공입니다

수강생 모집

대 상 | 아버지님 누구나
일 정 | 2012년 3월 10일(토)~4월 4일(토)
시 간 |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오후 3시 / 주치원 6주차는 오전 10시~오후 3시까지

인 원 | 선착순 40명(선착순 마감)
수강료 | 10만원
마 감 | 2012년 3월 4일(일) / 문 의 | 한미문화연구원 031-471-6926-7

※자세한 참가방법 및 절차는 www.hansi.org에서 확인

한미문화연구원 한마음과학원

17일 법정 스님 2주기 추모제

길상사 설법전서

길상사와 시민모임 '맑고향기롭게'가 법정 스님의 원적 2주기를 맞아 추모법회를 봉행할 예정이다.

추모법회는 2월 17일 오전 11시 길상사 설법전에서 봉행되며 법정 스님의 생전 뜻에 따라 조촐하고 간소하게 진행된다.

행사에는 불교계 인사들의 헌화 및 영상상영, 추모 법문, 추모사, 합창단 음성공양 등이 이어질 예정이다. 길상사 관계자는 "무소유를 통해 맑고 향기로운 삶의 지혜를 가지라고 생애를 통해 가르치셨던 스님의 뜻을 기리는 자리다. 여전히 이 시대의 고통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매우 값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고 전했다.

박기범 기자 smile2@hyunbul.com

천년 명찰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국가브랜드위 보고회의서

양산 통도사와 합천 해인사 등 문화재적 가치가 높은 국내 주요 사찰에 대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추진된다.

국가브랜드위원회(위원장 이배용)는 2월 3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5차 보고회의에서 "전통 사찰을 2015년까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될 수 있도록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보

고했다. '국가브랜드, 문화로 희망을 열다'를 주제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 브랜드위원회는 2012년도 계획으로 ▷세계문화유산 등재 지속 추진 ▷지역문화유산 등 지역브랜드 발굴 및 육성 ▷문화관광 명품 해설가 양성 ▷국제사회와의 소통 강화를 밝혔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2005년 한국잡지협회 우수잡지 선정 · 2008년 문화체육관광부 우수전문잡지 선정 · 2011년 문화체육관광부 우수콘텐츠 잡지 선정

월간「불광」이 어떻게 바뀌었길래...

월간「불광」을 새롭게 리뉴얼해 세상에 내놓은 후,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습니다. 다행히 독자, 필자, 광고주 여러분의 애정어린 성원 덕분에, 갑히 「불광」이 세계 방방곡곡을 부처님빛으로 환히 비추는 꿈을 꾸어봅니다. 당신의 행복이 「불광」의 행복입니다.

- 다 큰 자식 길들이기가 더 어려움 보인다... 너무나 고맙고 기쁜 마음으로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읽고 있습니다. - 조영준 님
- 2월호가 도착하였습니다. 너무나 고맙고 기쁜 마음으로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읽고 있습니다. - 이종연 님
- 10년 넘게 구독하고 있는데, 이처럼 들뜬 마음은 처음이에요. 영원히 소장하고 싶은 잡지입니다. - 이재여행사
- 어려운 시기에 광고 효과를 특별히 보고 있어요. 광고 잘 만들어줘 정말 고맙습니다. - 이재여행사

특집 _ 생명의 속삭임, 사찰음식-우리 시대 사찰음식의 본 모습 집중 조명 · 내가 만난 불교 불교계 양심적 병역거부자 1호 오대영 씨의 시대와 동행하는 불교 이야기 · 강원일기 _ 화인스님들의 구도정신과 정진을 통한 삶의 진지한 성찰 · 우리 집에 안기다. 화운사-어린이 전문 템플스테이 '놀이패! 공귀백!' · Art & Heart 불교와 현대 예술의 통섭을 모색하는 한지미술가 최병수 작가 · 명장의 고집불통(해초) _ 청자 도공 인자 김세용 명장 · 고전 산책 『신과 모타시』를 관리술/스탈가 장정일 · 별 주고 약 주기 박노해의 시에서 붓다의 속울음을 듣다 · 불교, 정확하고 명백하고 자유롭게 즐기기(주호) · 선불장을 찾아서 _ 실상사 재가법자 거울학림 · 부처님의 침묵소 _ 사리불과 목련의 이름을 아시나요? · 살아있는 명법문 _ 삶은 생각하는 대로 살아진다.

월간「불광」구독 문의 Tel. (02) 420-3200 www.bulkwang.co.kr

1년 정기 구독료: 60,000원 1권: 6,000원(은-오프라인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2월호

불광

표지: 최병수 작, (해초) 주호, 불광은 도화선(번가사유상)으로 삼계화(삼계사유상)를 형상화.

특집 생명의 속삭임, 사찰음식

이름 없는 불교의 보물 창고

한미문화연구원